공간과사회 2019년 제29권 3호(통권 69호): 5~12
http://dx.doi.org/10.19097/kaser.2019.29.3.5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포용적 공유도시와 커먼즈*

The Inclusive Common City and Commons

박인권**

시대정신으로서 포용과 공유

'포용(inclusion)'과 '공유(commoning)'는 가히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만하다. 이 개념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과 기조로 언급이 되고, 여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도 이를 추구하는 여러 활동을 기획하거나 관련된 담론들을 양산하고 있다. 10년 전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로 많은 영세상인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이미 '배제(exclusion)'와 '사유(privatization)'의 시대는 심대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07~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하여 종언을 구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 이 글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7S1A3A2066514)의 일환으로 작성됨.

**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부교수(parkik@snu.ac.kr)

www.kci.go.kr

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포용과 공유를 위한 개혁적 조치들은 사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안은 모순의 극단에서 모색되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가구당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2019년 2분기 현재 5.3으로서, 역대 2분기 기록 중 가장 높은 최악의 수준이다(가계동향조사, 2019년 2/4분기). 이는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가 지속된 결과이다. 도시공간의 약탈적 사유화는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거난민촌이라 할 수 있는 쪽방의 실소유주들 중 서울의 강남 3구, 부산 마린시티 등 부유층 거주지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69.6%에 달하고 상당수(22.0%)는 다주택자이다(이혜미, 2019). 이들 쪽방 소유자들은 최악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4배도 넘는 평당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약탈적 이익들을 취하는 '빈곤의 비즈니스'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이혜미, 2019).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에서도 이러한 불평등과 배제는 발견된다. 지난 9월 초 허리케인 '도리안'이 휩쓸고 지나간 바하마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로서,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빌라촌 지역에서는 재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판자촌 거주지는 자연재해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처참한 폐허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구정은, 2019). 이러한 모순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도시를 '커먼즈(commons)'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

www.kci.go.kr

시와 공간 연구에서 최근 포용과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적 공유도시'가 대안적·비판적인 도시 담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 담론은 거주민들 모두가 다양한 기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하며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포용성을 갖춘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배타적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생활방식과 공간의 향유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이용하는 '공유'를 실천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전통적으로 '공유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커먼즈(commons)'는 포용적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자 사회적 실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커먼즈, 공유를 위한 실천

커먼즈는 단순히 '공동자원(common pool resources)'을 넘어서 사회적 실천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세팅에서 커먼즈는 목초지, 숲, 공동어장과 같이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공동자원으로 이해되어 왔다(Ostrom, 1990). 자원 고유의 속성으로서 비배제성과 감소성(또는 경합성)을 갖는 재화 또는 자원을 커먼즈로 이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원을 지나치게 물신화할 위험이 있고, 자원을 둘러싼 사회관계와 인간의 실천에 따라 이러한 속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최현, 2019). 사실 커먼즈는 자연으로서 자원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사회관계와 공유하기(commoning)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정영신, 2016).

현대적 세팅에서 커먼즈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실천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 68혁명 이후 서구에서 전개된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점거운동은 사적 소유권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집합적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실천이었다. 빈 공동주택을 무단점유(squatting)하여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공동돌봄,

www.kci.go.kr

공동취사, 건강센터와 같은 집합적 생활을 시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점, 카페, 식당, 광장 등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 점거투쟁도 전개하였다(윤수종, 2013). 이런 맥락에서 현대적 의미의 커먼즈는 현대 자본주의 도시를 지배하는 시장의 원리와 가격법칙을 거부하고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선취(先取)하기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커먼즈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선취하는 실천이라 볼 경우, 커먼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커먼즈는 기존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내외부적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실천은 사적 소유 및 시장의 법칙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적 시장질서 아래에서 '도시(the urban)'는 자본의 투자와 상품화로 포화된(saturated) 공간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실천은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Huron, 2015).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커먼즈는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시장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하는 형태로 존재하도록 관리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커먼즈는 분명 시장질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실천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커먼즈가 항상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De Angelis, 2009).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먼즈에 대한 환상과 물신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커먼즈가 포용적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실천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지, 특히 현대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www.kci.go.kr

비판적 커먼즈 논의를 위해

이번 특집호는 현대 도시에서 커먼즈가 갖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성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커먼즈를 자본주의 질서의 대척점에 있는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기보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경험하고 재구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포용적 공유도시라는 비전의 실현과 미래 가능성의 선취를 위해 커먼즈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의의에 주목하면서도 현실적인 조건과 사회관계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동시에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권범철(2019)은 커먼즈와 창조도시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대 커먼즈의 의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자본에 의해 커먼즈가 '흡수'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그는 우선 68혁명 이후 점거운동에서 시작된 현대 커먼즈 운동이 사적 소유를 거부하고 새로운 '집합적 생활양식'을 실천함으로써 대안을 창조하는 실천운동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한계에 봉착한 자본이 축적위기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커먼즈를 포섭하고 흡수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예술가들의 '스쾃(squat)' 행위와 창조도시 전략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예술가들은 빈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작업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유공간을 만든 행위, 즉 스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기존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창조하는 실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커먼즈 운동이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면서 자본주의를 '구원'하고 자본의 축적에 복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모든 것을 종획(enclosure)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자 그 대안적 출구로서 커먼즈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조도시 전략에서 커먼즈로 나타나는 예술가들의 행위는 관광명소와 같은 '집합적 상징자본'으로 역할을 하며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www.kci.go.kr

을 경고한다.

다음으로 박인권 외(2019)는 현대 커먼즈의 대표적 존재 양식인 '도시 커먼즈'가 그 존재를 위협하는 자본주의 '도시(the urban)'적 조건들로 인해 끊임없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경의선공유지' 관리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도시 커먼즈 관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도전들은 개별 사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도시 커먼즈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도시'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로 충만한 '포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가치와 관리방식을 추구하는 커먼즈 운동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도시적 속성과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이 긴장관계를 이루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균형 상태의 유지와 내재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입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찬(2019)은 자본에 의한 공유자원의 사유화라는 전형적인 시장질서가 지역사회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면서 커먼즈적 실천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사례로 외부 개발 자본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하는 유원지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원주민을 소외시키고 지역공동체를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점, 자원의 낭비와 환경파괴를 조장한다는 점, 각종 법적 분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안적 커먼즈 모델은 공

www.kci.go.kr

동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지역공동체가 집합적으로 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사유화 모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공동자원의 관리라는 전통적 커먼즈 문제가 자본주의 발달과 사회관계의 변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실천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커먼즈 논의가 포용적 공유도시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우리는 커먼즈를 단순히 '공동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현대 도시의 지배적 시장질서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적 실천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관점은 커먼즈를 수동적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개척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용적 공유도시 실현이라는 실천과 괘를 같이한다. 다음으로 커먼즈가 갖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이에 따른 축적전략으로 인해 커먼즈 운동은 끊임없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커먼즈 운동의 물신화와 제도화를 막고 실천적 의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특집호가 그러한 관점을 확립하고 관련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권범철. 2019.「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3), 13-62쪽.

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3), 63~114쪽.

윤수종. 2013.『자율운동과 주거공동체』. 집문당.

정영신. 2016.「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20(1), 399~442쪽.

조성찬. 2019.「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중단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3), 115~158쪽.

www.kci.go.kr

최현. 2019.「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바다밭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3(1), 12~39쪽.

De Angelis, M. 2009. "The tragedy of the capitalist commons." *Turbulence: Ideas for Movement* 5, pp. 32~33.

Huron, A. 2015. "Working with Strangers in Saturated Space: Reclaiming and Maintaining the Urban Commons," *Antipode* 47(4), pp. 963~979.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문 및 인터넷 자료

구정은. 2019.「[뉴스 깊이보기] 이주자 판자촌과 빌라촌, 바하마의 허리케인이 보여준 '재난 불평등'」. ≪경향신문≫, 2019년 9월 6일 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51418001 (최종접속: 2019.09.06).

이혜미. 2019.「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 ≪한국일보≫, 2019년 5월 7일 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641056941 (최종접속: 2019.08.13.).

www.kci.go.kr